

社說

석산개발업자에게 돈 받은 시의원

지난 12일 강태선 시의원이 석산개발업자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태선 시의원은 2004년4월 석산개발업자 전 모씨로부터 1천만원의 돈을 받은 등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돈을 받은 것은 석산개발 인허가를 공무원에게 부탁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가법상 알선 수재에 해당한다.

강태선 시의원과 함께 포천시 장 매제로 알려진 오 모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포천시가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 관련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포천시의 행태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석산개발은 영종면 거사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일명 금화봉이다. 이 지역은 국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게 석산업계의 전언이다.

또 이 곳에 위치한 사할주지는 포천시에 2004년 석산개발 허가를 신청했지만 조건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에 포천시가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 관련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포천시의 행태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 당시 주민들은 포천시가 석산개발 허가를 해 주려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주장했었다. 더욱이 학술용역 내용이 '포천지역 석산개발과 환경문제'가 아니라 금화봉일대 석산개발이라며 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간 용역보고회가 개최되자 주민들은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중간용역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도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나 생태계 변화보다는 석산개발 이익이나 석산업체가 지역에 미치는 이익 등을

주로 기술하고 있었다. 당연히 석산개발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나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2차례에 걸쳐 포천시청 앞에서 석산개발 반대 시위를 벌였고, 포천시장은 그때마다 신규 석산 개발허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석산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는 계속되었고 급기야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마을이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종면 출신인 강태선 시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동과는 달리 석산개발을 해야 한다고며 석산개발 찬성 동의를 직접 받기 위한 행동을 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석산개발업자와 밀착관계가 아닌 국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게 석산업계의 전언이다.

포천시의 입장에 애매했다. 3년 동안 석산개발 허가서류가 접수되었는데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석산허가 여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여 서류반려만 반복했을 뿐이다.

이러한 포천시의 태도는 석산개발업자에게는 석산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남겨놓는 셈이 됐다. 최근에야 비로소 포천시는 석산개발 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석산업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허가관청이 포천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주민들과 석산개발업자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도록 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 모든 과정이 밝혀지겠지만 석산개발업자와 시의원, 포천시와의 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포천시는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혹은 불허가 여부를 분명히 밝혀 다니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수복 부총무 선출 등 안건토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6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제66차 정기회의를 6월15일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구독자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석중인 부총무에 이수복 위원을 임명했다.

윤이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으로 바뀐 상황에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면서 "운영위원회는 매월 3째주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갖기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위원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만나서 정담을 나누자"면서 "정기 모임때 만류이라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효열 발행인은 "윤이용 위원장께서는 위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개인시간을 많이 할애하



대통령의 선거별 위안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포천지역에서 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혼란스럽다"면서 "포천신문은 지역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김광우 前동아대 교수 자문위원 위촉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1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6월12일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 제21차 정기회의가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과 발행인 인사말에 이어 자문위원회 4월 재무보고 및 승인의 건, 신임 자문위원

위촉의 건, 자문위원들의 자문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前동아대 교수를 역임한 포천아시아비엔날레 조직위원 김광우 부위원장을 신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날씨가 갑작스럽게 무더워진 상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며 "포천신문 자문위원들의 교육과 예술분야 활동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포천시의원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어떤 사람이든 매사에 조심하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며 "자문위원들이 초야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조사위원장 이상일 총무 김형석 추진

공석인 부위원장에 박종식 위원 선출

지난 14일 개최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23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위원장과 김형석 총무 추대의 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이상일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공석이 된 부위원장에 박종식 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안건 토의는 위원장과 총무 인준의 건을 비롯한 조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건, 포천신문 구독

및 광고 활성화의 건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중현 고문은 "조사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이상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형석 위원을 총무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 고문은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정다운 이웃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살자

월 20만원 기탁, 불우이웃돕기 생활화 앞장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느껴 볼 수 있도록 정다운 이웃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김중연 분지 조사위원의 고문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정신건강은 물론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강조하는 김중현(64·사진) 고문은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세계일보 조사위원회 포천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지역신문에도 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불우이웃돕기는 1년 365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상시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2004년11월에 개설해 현재까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창구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정성을 모아주는 사람과 그 정성을 받아 가는 주고받는 사랑의 아름다운 미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김 고문은 살아야면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은 쓰지 않고 세금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세금납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야담이 없다고 한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 의료보험도 더 많이 납부하고 싶은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강조한다.

김 고문은 포천사회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정, 시장, 국회의원 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의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월 1~2만원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한다. 이 세상을 떠나

면 돈을 써둬도 갈 것도 아니고 내 살아 있는 동안에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산다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가 고향인 김 고문은 송우리 이사장, 소흘농협 이사, 세계일보 포천시 조사위원장, 가산초등학교총동문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사회를 위해 내공과 마음을 바쳐 밝게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포천신문 구독신청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포천사람이 포천신문을 구독해야 포천사람'이라며 구독을 권유하고 있는 김 고문은 포천신문은 포천의 자랑이며 조사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포천신문이 좀더 시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시내 교통가에 위치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하루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사람의 마음을 좀더 열게 하셔서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the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highlighting its status as the highest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and listing its subscription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Pocheon News is the highest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and a detailed list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 and institutions.